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하반기 첫 공식일정으로 팔복동에 위치한 섬유제조공장의 코튼클럽(주)과 (주)에스케이어패럴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개성공단 유턴기업 문제해결 나서

김승수 전주시장 기업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양방향 소통행보 활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전주에 동지를 둔 의류업체를 방문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3일 하반기 첫 공식일정으로 팔복동에 위치한 섬유제조공장인 코튼클럽(주)(대표 김보선)과 (주)에스케이어패럴(대표 이운영)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섰다.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지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역점사업이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업체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전주시로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팔복동에 동지를 열고 정착한 (주)에스케이어패럴과 그 모기업인 코튼클럽 등 2곳이다. 김 시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침체된 중소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운영 (주)에스케이어패럴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전주로 이전해 오기까지 애로사항을 수시로 들어주고 해결해준 전주시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 현재 팔복동에 90억원을 투자해 전주시민을 75명

가량 고용했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 본사까지 전주로 이전했다"며 "앞으로 전주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에 산을 지난해보다 10배 늘렸다. 또,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부처에 방문 건의하는 등 소통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김 시장은 지난 1월에도 시무

식을 생각하고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과 함께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 기 살리기 및 지원방안 회의를 갖는 것으로 정유년 새해 첫 업무를 대신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힘써왔다. 김승수 시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가보면,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고, 기업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며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일이라면 불법만 아니면 뭐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화 총력

전주시, 오는 14일까지 시공주택 우기대비 일제 점검

전주시가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현재 시공중인 관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쳐온 전주시가 시민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25개 공동주택 단지과 공사가 중단된 1개 단지, 일반건축물 11곳 등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점검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실

태 점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절성토부분의 우기대비 붕괴, 슬라이딩 및 침하발생 여부, 구조물의 양생미흡,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 등이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우기를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건설현장의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물론, 안전한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전주가 되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채주석 비서실장 예상

전주시가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정무보좌관)을 임용한다. 시의 정무보좌관 신설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전문 임기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행정부가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임기제 공

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설되는 전주시의 정무보좌관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채주석 현 비서실장이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 비서실장이 정무보좌관에 임명이 예상되면서 차기 비서실장에 누가 임명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김승수 시장의 코드에 맞는 행정직 5급 사무관 3-4명이 하반기에 오르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범행 숨기려 거짓 신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들뜸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거짓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3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후배 B(29남)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남)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A씨는 B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갑에 현금이 많은 것을 알게됐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치고, 본인의 지갑도 없 어졌다며 "모텔 직원이 들어와 훔친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모텔의 CCTV를 분석하고 모텔 직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했지만 혐의집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자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후배 지갑에 현금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욕심에 훔쳤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드론축구단 유니폼 디자인 공모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전주시가 선수단이 착용할 유니폼 등 드론축구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등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드론축구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열린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를 통해 첫 선을 보였으며, 지난 4월부터 지역 5개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드론축구공을 생산해 전국에 판매하는 등 드론산업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

써왔다.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공식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에 드론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축구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월 창단돼 전국에 드론축구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앞장서는 전주시 드론축구단의

유니폼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간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전주시 드론축구단의 이미지에 최하는 등 국내에 드론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축구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자와 동복, 하복 등 총 3식의 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니폼은 상·하의가 구분되는 편안한 디자인으로써 전주시

8월 말까지 누구나 참여  
1등에 100만원 상금 지급

드론축구단의 상징성과 독창성, 시각성 등을 고려하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이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1등 100만원과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제안서와 디자인 파일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전주 시청 탄소산업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jl01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여자친구 상습폭행범 형사입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인 B(45,여)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로 피의자 A(42,남)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지난 달 7일과 8일에 주먹이나 맥주병등으로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지난 5월 22일과 6월 8일 피해자의 차량의 유리창 깨트리는 등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